

화순군, 도곡면 틈새 소득 작목 '애플수박' 본격 출하

최근 1인 가구 확산 등 소비 트렌드에 맞춘 미니수박 출하 4개 농가 시설하우스 0.6ha서 재배...일반 수박比 소득 2배

화순군은 도곡면의 틈새 소득 작목인 '애플수박(소과종)'을 지난 8일부터 출하하기 시작했다 밝혔다. 화순군은 경쟁력 있는 틈새 작목을 육성, 농업·농촌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읍면 1틈새작목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수박은 도곡

면의 틈새작목으로 4개 농가가 시설하우스 0.6ha에서 재배했다. 군은 애플수박 모종, 소포장 박스 등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현장 기술지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수박은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형 1~2kg 정도의 크기로 일반 수박 크기의 1/5 수

준이다. 1인 가구에서 부담 없이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애플수박은 일반 수박과 비교해 1/10 정도 더 얇아 사과처럼 껍질 먹어 먹을 수 있다. 이번에 출하한 애플수박은 아시아계열 국내 우량 품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1.5~2kg 무게에

최대 12~13브릭스(Brix)의 고당도로 현재 4000~6000원에 화순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광주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은 일반 수박보다 2배 정도 많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애플수박 재배 시범 사업을 출발점으로 고품질 다수확 애플수박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실증재배와 생육단계별 현장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틈새 소득 작목이 지역의 주요 소득 작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가로등 불빛이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로고젝터 통해 자살예방 희망메시지 전해

곡성군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옥과면 가로등 2곳에 자살예방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로고젝터란 야간에 이미지와 문구를 바닥에 비추는 조명장치다. 메시지전달 효과가 높아 각종 홍보 등에 많이 사용된다. 곡성군은 로고젝터를 통해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로고젝터 설치에는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곡성경찰서,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했다. 이번에 설치한 로고젝터에서는 문구 4개가 시차를 두고 번갈아 나온다. '고민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함께 걸어요', '넘어졌다면 내 손 잡아 다시 일어서면 돼' 라는 문구

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또한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곡성경찰서와 함께 합니다' 라는 곡성경찰서의 문구는 밤길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지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치매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365일 늘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군, 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모집

담양군은 최저임금 인상, 재료비 상승에도 가격인상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위생 상태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점항목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담양군 플뿌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가격 지정업소에는 지정서 및 인증 표찰 교부, 군 홍보

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버섯반 수료식

총 회 24시간 과정 거쳐 총 18농가 수료증 받아

구례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진행한 2020년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버섯반의 수료식을 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에서 8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육은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초기 귀농인과 예비귀농인이 귀농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

기 위해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24시간의 과정으로 진행하여 18 농가 수료증을 받게 됐다. 특히 신규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표고버섯 과정을 운영하여 원목표고와 톱밥표고 재배기술 등 버섯을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다루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심 작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농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양봉 사양 기술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청년 모여라" 나주시, 청년희망학교 수강생 모집

27개 과목 구성...22일까지 과목별 10명 선착순 모집

나주시는 이달 청년센터 개소와 함께 지역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청년 희망학교'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희망학교는 청년의 사회 진출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그룹 강좌로 지난 6월 중 사전 강사 모집을 통해 취·창업, 경제, 어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27개 과목이 구성됐다. 강좌명과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시정 고시·공고란 7월 1일자 '2020년 청년 희망학교 청년수강생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과목별 수강 신청 정원(10명) 선착순 마감 순으로 총 22개 강좌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주시 관내 거주자 또는 교육기관·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다. 신청 방법은 관련 공고문에 붙인 청년희망학교 수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나주시청년센터 이메일(nj7987@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강좌는 오는 8월 개강해 10월까지 3개월 간 최대 20시간 과정(1일 2시간 이내)으로 청년센터에서 운

영된다. 단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청년희망학교는 청년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관심사와 배움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문화관광 중심지

영암군
YEONGAM-GUN

평일 밤 한
일 상 속
남다른 여행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